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6/03/02~2026/03/08]

2026.03.09

[로봇] 3월 10일

- AW2026 개최. 로보티즈 QDD부터 티로보틱스 휴머노이드까지 신기술 공개
- 현대차 중심의 로봇 밸류체인 관심 지속. 모비스 아틀라스 부품 추가 수주. 모베드 얼라이언스도 출범
- 휴머노이드 시장에 오랜만에 등장한 중국의 샤오미. 자동차 공장 투입해 실증 진행

[방산] 중동의 방패가 된 천궁

- 이란 충돌 속, 요격 미사일 소모로 한국의 천궁 수출 확대 기류 형성
-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KF-21 등 수출 기대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단기전 예상했으나, 장기전 가능성도 대두

[조선] 호르무즈 사태와, 캐나다 잠수함

- 캐나다 잠수함 최종 입찰 제안에 한국과 독일 모두 자동차 공장 설립은 미포함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 탱커 운임 확대 지속. LNGC 용선료도 상승 추세
- 2월 전세계 선박 수주량 521만CGT. 전월비 23% 감소

[항공] 이란 사태로 인한 쇼크

- 이란 사태로 유가 상승과 중동 하늘길 봉쇄 영향
- 티웨이항공, 올해 하계 시즌 유럽 노선 예약률 전년비 14% 상승
- 일본 노선 수요 호조 속 증편 계속. 에어프레미아도 나리타 주 10회로 증편

[해운] 호르무즈 해협 폐쇄

-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폐쇄, 선박 교통량 95% 이상 급감
- GS칼텍스, VLCC 스팟운임 역사상 최고치인 43만 6,000달러에 용선 계약
- 트럼프, 걸프 통과 선박에 정부 보험 즉시 지원. 필요시 해군이 유조선 호송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3월 10일

이번 주 3월 10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코스닥 150 액티브 ETF 출시 등 로봇 섹터에서 기대할 이벤트가 다수 집중. 리스크는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점.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6)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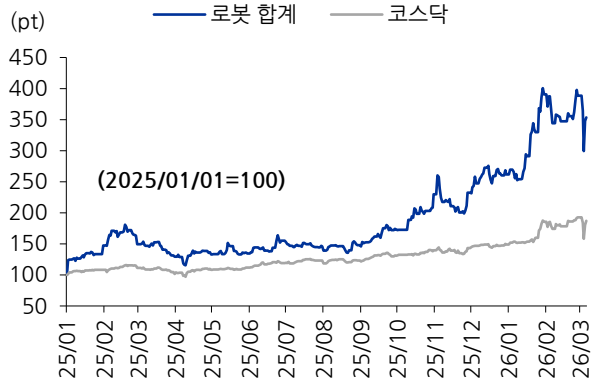
- 이번 주는 **국내 로봇株 모멘텀이 부각되는 한 주**가 될 것. 특히 3월 10일에 다수 이벤트 집중. *(1)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로봇 도입 촉발 기대감 확대. (2) 코스닥 150 액티브 ETF 출시로 인한 패시브 수급 유입 기대감. (3) 미국 상무부와 미국 로봇 기업들의 공급망 논의 속, 중국 중심 로봇 부품 공급망 전환 기대감 더해질 것*으로 전망함.
-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 작년과 분위기가 바뀐 점은 리스크 요인. 작년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에는 노란봉투법이 로봇 자동화 수요를 키울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올해는 노조의 교섭권 보장 속, 로봇 도입 반대 파업이 늘어나 자동화 전환에 제약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 늘어나는 중.**

Key Chart: 노란봉투법 3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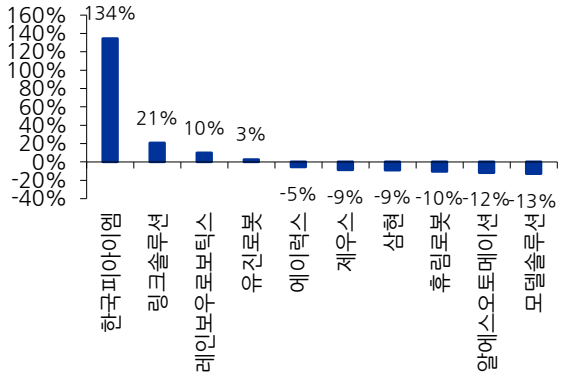
재계 주장		정부 설명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이 '실질적 지배'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	사용자성 문제	사용자성 인정은 '안전'에 한정, 산업안전은 원·하청 공동 책임 및 협력 영역
원청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논란 결합 시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추진에 차질	쟁의 증가 가능성	사안별로 문제 발생 시 사건별로 대응 예정
원청이 최소 2개 이상 노조와 교섭할 필요성, 원·하청 노조 교섭이 불가	교섭 부담 증가	원·하청 노조는 교섭 범위·책임 구조가 달라 구조적으로 구분이 필요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03/02~03/08)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나우로보틱스, 37억 규모 로봇 자동화 설비 공급 계약
- 테솔로·테크맨 로봇, 유연 자동화 로봇 솔루션 공개
- 유진로봇, 자율주행 로봇·협동로봇 결합

[휴머노이드]

- 티로보틱스,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TR-WORKS 공개
- 뉴빌리티, 휴머노이드형 서비스 로봇 '빌리' 공개

[부품/SW/기타]

- 현대모비스, 아틀라스 핵심부품 5종 추가수주 가능성
- 현대차, 휴머노이드에 국산 감속기 채택한다
- 현대차·기아, 이동형 로봇 모베드 국내 판매 개시
- 현대차·기아, '모베드' 부품·로봇기업 15곳과 협업
- LS티라유텍, 현대차 '모베드' 전용 탑모듈 개발
- 아틀라스 등 현대차 AI로봇, 코엑스서 국내 첫 공개
- 삼성, 中 휴머노이드 기업 '로보테라'에 투자
- 로보티즈, 로봇 QDD 액추에이터 공개
- LG유플러스-에이로봇 MWC 2026서 피지컬 AI 공개
- 투모로로보틱스, 로봇 AI모델 '하빌리스 베타' 공개

[Global]

- 보스턴다이내믹스 스팟 미국 공군기지에 투입
- 컬컴 CEO "로봇 산업, 2028년까지 핵심 시장 될 것"
- 아마존, 로보틱스 부문서 100명 이상 해고
- 中 휴머노이드 기업 '노에틱스', 2,000억원 투자 유치
- 中 샤오미 휴머노이드, 자동차 공장 투입해 실증
- 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국가표준체계 공개

Weekly Keyword

중동의 방패가 된 천궁

이란이 주변 걸프국을 대상으로 미사일 등 공격을 감행하면서, 방공 수요가 크게 증가 중. 요격 미사일 쇼티지 속, 한국의 천궁이 주목받고 있음. UAE에서 실전 투입도 확인. 천궁 수요 증가 전망.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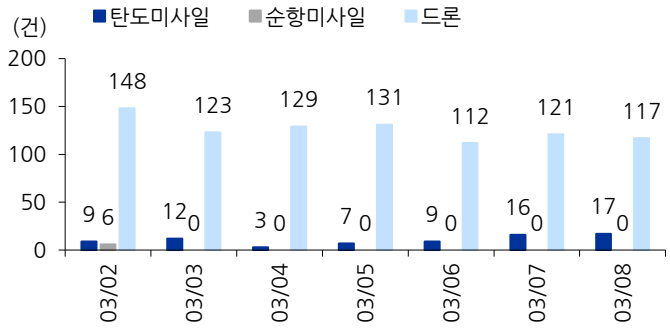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64)

[중동의 방패가 된 천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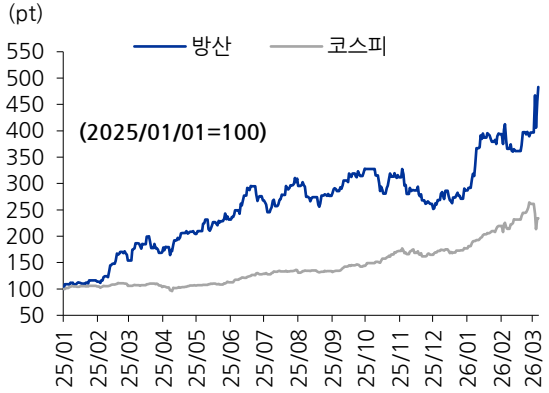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주변 걸프국을 대상으로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 중. 방공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며, **한국의 천궁 체계에 이목이 집중** 되고 있음.
- 다수의 언론 보도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 됨. *(1) 천궁이 UAE의 요격 임무에 투입되어 요격률 96%을 달성함(2개 포대에서 60발 발사) (2) UAE로 부터 포대 및 요격탄 조기 납품을 요청받음 (3) 이에 한국은 유도탄 조기 수출 추진 중(30발을 3월 8~9일 인도), (4) UAE 外 사우디, 이라크도 조기 납품 요구 중이며, 카타르와 신규 계약 및 조기 납품 논의 중.* 중동에서 천궁 실전 데뷔 겪으며 성능 입증한 점 고무적. **향후 천궁 추가 수출 가능성 및 L-SAM 수출 가능성 확대, 조기 인도를 통한 매출 인식 증가, 긴급 소요 속 공급 업체의 가격 협상력 상승 등 기대 요인 다수.**

Key Chart: 이란의 UAE 공격 동향(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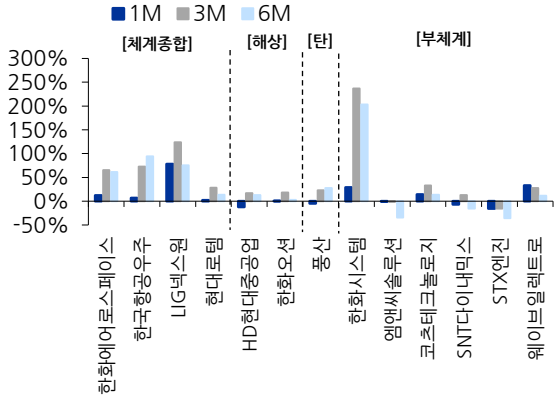


자료: UAE MOD,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방산 주요 뉴스(03/02~03/08)

[수주/계약]

- UAE, 천궁-II 추가 구매 긴급 요청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탄약공장 건설 지원
- 한화, 美 유니온과 손잡고 155mm 포탄 생산
- LIG넥스원, 말레이 중거리 방공망 사업 출사표
- LIG넥스원, 구미에 '함대공유도탄-II' 시설 준공
- 이달 말 KF-21 양산 1호기 출고행사 예정
- KAI 신임 CEO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장 내정
-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지분 매각 1.7조 조달

[기타]

- 李대통령, 필리핀 정상회담서 원전·방산 협력 논의
- 한국 천궁-II, 이란 미사일 96% 요격
- 천궁-II 유도탄' 수십 발 UAE 조기 수출 추진
- 주한미군 차출 협의. 지상전 땐 '천무' 실전 투입
- 엠앤씨솔루션 매각 속도. 예비입찰 마무리
- 풍산, 탄약사업부문을 1.5조원에 매각 추진

[글로벌]

- 백악관 "이란 내 작전 완료까지 4~6주 소요 예상"
- 트럼프 "美방산업체, '최상급' 무기 4배로 증산 합의"
- 이란, 대통령 사과 몇 시간 만에 또 걸프국 공격
- UAE와 사우디가 이란에 군사 보복 가능성 검토
- 안두릴, 600억달러 가치로 추가 투자 라운드 추진
- 폴란드 대통령 "EU 대출 안받고 우리 돈으로 무기 구매"
- 中, 2026년 국방예산 7.0% 증액. '사상 최대' 편성

Weekly Keyword

호르무즈 사태와, 캐나다 잠수함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영향으로 탱커 및 LNGC 운임 상승 중. 가용 선박들의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캐나다 잠수함도 입찰 마감. 마감 후에도 한국은 캐나다에 적극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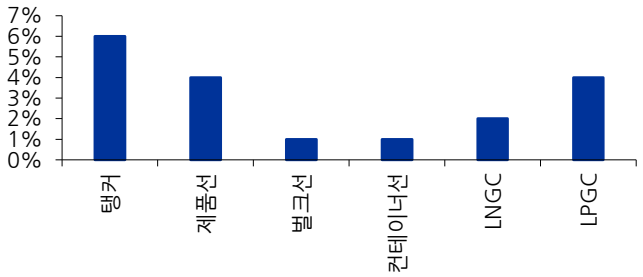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4)

[호르무즈 사태와, 캐나다 잠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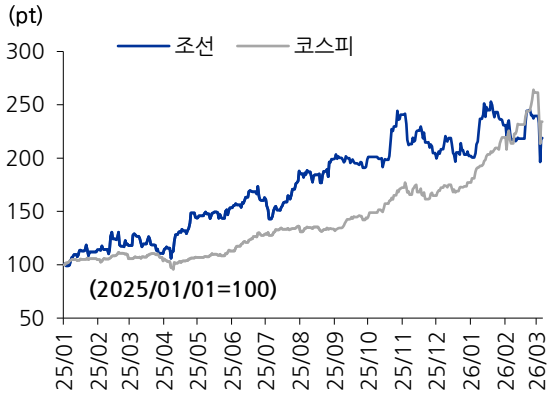
-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영향으로, 탱커 및 LNGC 운임이 상승 중. 우회로 인한 톤마일 증가,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 등으로 인한 가용 선박 감소 여파. 사태 이전에도 탱커는 그림자 선단 퇴출 확대로 운임이 상승 추세였음. 호르무즈 해제 이후에도 대기 물량 출하되면서 **선박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LNGC도 사태 장기화 시 중동 → 미국 등으로 수입 전환되면서, 미국 FID 촉발 가능성도 제기. **리스크 요인은 사태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며, 물동량이 감소하는 케이스.**
- 캐나다 잠수함은 3월 2일 입찰이 마감되었음. **캐나다가 요구한 자동차 공장은 한국과 독일 모두 제안하지 않았음.** 일각에서 6+6 한국/독일 분할 발주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캐나다 측에서 일축. **한국은 입찰 마감 이후에도, 3월 5일 한화 그룹의 CPSP 파트너스 데이 개최, 산업부 장관의 캐나다 방문 등 수주에 대한 열의를 불 태우는 중.**

Key Chart: 걸프만에 갇혀있는 선박들(글로벌 선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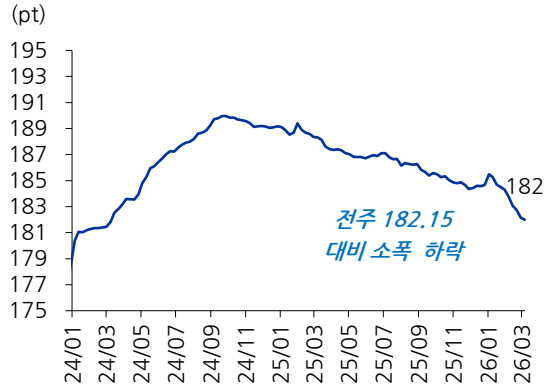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3/02~03/08)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LNGC 4척 $253.9M에 수주
- HD한국조선해양, 2,632억원 규모 탱커 2척 수주
- HD현대重, 그리스 아르카디아와 탱커 2척 LOI 체결

[특수선]

- 캐나다 잠수함 최종 입찰. 韓獨 "차 공장은 없다"
- 캐나다 "잠수함 분할 발주 없다". 韓·獨 '승자독식' 수주전
- 캐나다 온타리오, 현대차그룹에 '러브콜'
- 英 대사, 한화오션 조선소 방문. 加 잠수함 협력 점검
- 한화오션, 캐나다 기업·대학과 신규 파트너십 체결
- 한화오션, 加 산업부 장관·온타리오 주지사와 회동
- 산업장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위해 5일 출국
- 도산안창호함 9일까지 거제에서 캐나다 출항 준비

[기타]

- HD현대 "比 조선소 글로벌 MRO 거점으로 육성"
- 한화오션, 콩스버그·시드릴과 '심해 시추' 기술 확보
- 한화시스템, 마스가 투자 위해 1.7조 조달

[글로벌]

- 2월 전세계 선박 수주량 521만CGT. 전월비 23% 감소
- VLCC 운임 '폭등'. 하루 42만 달러 기록
- TKMS, 캐나다 원주민 단체와 잠수함 사업 동맹 구축
- 라인메탈, 독일 조선업체 NVL 인수
- 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검토" 보험·보증도
- 카타르에너지, '불가항력' 선언. 정상화 한달 걸려
- 중국 2군 조선소도 VLCC 시장 진입. 경쟁 심화

Weekly Keyword

이란 사태로 인한 쇼크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항공주들의 주가는 급락을 기록 중. 사태 장기화시 수요 침체 가능성도 제기.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 3월 15일까지 UAE 두바이 노선을 운항 중단.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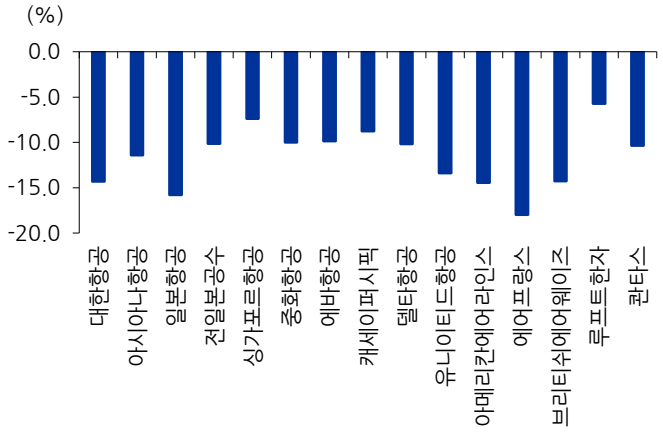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4)

[이란 사태로 인한 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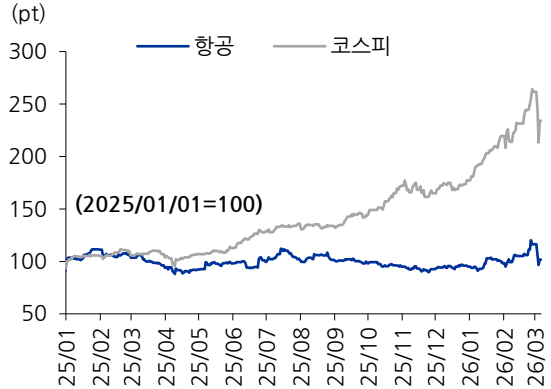
-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로, 유가가 급등 중.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항공사들의 주가는 급락.** 한국은 원-달러 환율까지 큰 폭으로 상승 중인 점도 부담.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환될 경우, 수요 또한 침체될 수 있음.**
- 대한항공은 3월 15일까지 UAE 두바이 운항을 중단. 두바이 노선 운항 횟수가 적어 직접적인 실적 타격은 없음.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도 이란 공역을 운항하지 않아, 항로 변경의 영향도 제한적임.

Key Chart: 글로벌 FSC 5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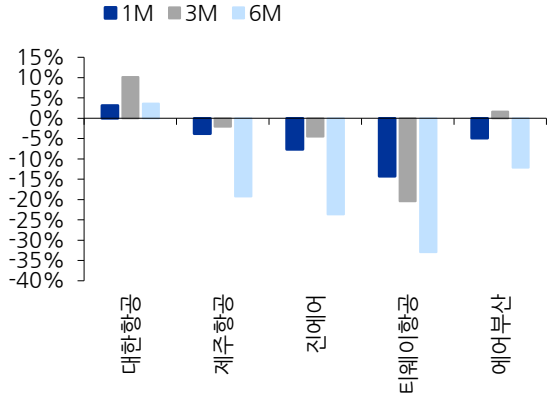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항공 주요 뉴스(03/02~03/08)

[여객/화물]

- 에어프레미아, 인천·나리타 노선 주 10회로 증편
- 인천~제주 직항 뚫린다. 김포 환승 없이 제주로
- UAE 등 중동 7개국 여행경보 '철수 권고'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美 LA 공항 라운지 새단장
- 대한항공 창립 57주년. 조원태 '원 팀·안전·비용 절감' 강조
- 대한항공, 2,500억 회사채 수요예측서 6,950억 주문
- 아시아나도 연말부터 '청자색 유니폼' 입는다
- 티웨이, 하계 유럽 노선 예약률 전년비 평균 14% 상승

[기타]

- 중동 전쟁' 확산 우려에 WTI 폭등 '1년 8개월 만 최고'

[글로벌]

- 아시아 우회 항공권 900% 폭등. 하늘길 '올스톱'
- 中 항공사, 중동 불안에도 항공 노선 일부 재개
- 중동 하늘길 폐쇄 여파로 中 항공사 이익 본다

Weekly Keyword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란 공습 이후 격동의 한주가 지나감.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폐쇄된 상황이며, VLCC 운임은 사상 최고치 기록. 해운 시장은 단기적으로 업사이드를 누리고 있으나, 사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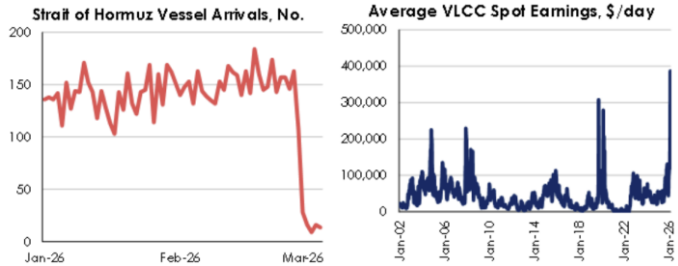
RA 임범수
02) 368-6168_ beomsu@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

[호르무즈 해협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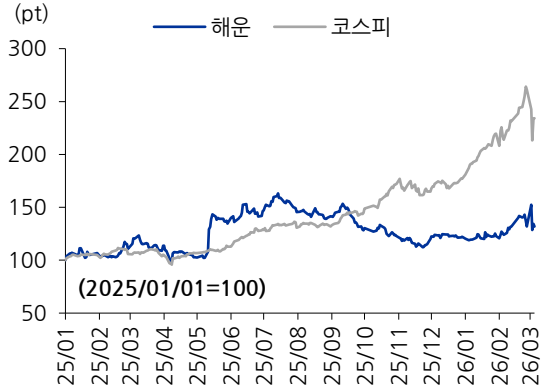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격동의 한 주가 지나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90% 이상 감소하며 실질적으로 폐쇄된 상황.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해상 에너지 물동량은 석유 30%, LPG 30%, LNG 20%이며, 글로벌 벌크 및 컨테이너 물동량 또한 3% 수준. 에너지 가격은 한 주 내내 상승했으며, 얀부(Yanbu)를 목적지로 한 VLCC는 평소의 3배 수준인 15척으로 파악됨.
- 3/6 기준 LNG선 현물 운임도 전주대비 5배 이상 증가한 20만달러/일 기록. 강세를 유지하던 VLCC 운임(AG-East spot earnings)은 사상 최고치인 48만달러/일 기록. 높은 운영 리스크와 운임 변동성으로 VLCC 실제 계약 체결은 미미한 상황이나, 해운 시장은 혼란이 빚어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ClarkSea Index: 53,319달러/일, +42%WoW).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화물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당분간 운임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 향후 전개 지속 모니터링 필요.

Key Chart: 중동 전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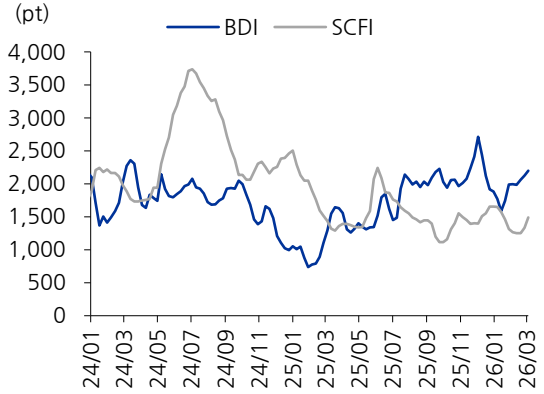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3/02~03/08)

[벌크선]

- BIMCO,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건화물 물동량 4% 영향
- 벙커 가격 급등, Capesize급 벌크선 시장은 찬바람

[탱커/가스선]

-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폐쇄, 선박 교통량 95% 이상 급감
- 분쟁 발발 1주일만에 선박 9척 피격, 200척 걸프 해역 고립
- 트럼프, 걸프지역 항행 선박에 보험 및 호위 제공
- 이란 전쟁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 석유 기업
- MSC, 페르시아만향 운송화물에 대해 '항해 종료' 선언
- 중동 원유 공급 차질 심화, VLCC 스팟 운임 사상 최고치
- VLCC 운임 사상 최고 수준에도, 실제 계약 체결은 제한적
- LNG선 스팟 운임 30만달러로 급증, 전쟁 전 7배

[컨테이너선]

- 2026년내 홍해로 컨테이너선 운항 재개 가능성 희박
- COSCO, 중동 노선 컨테이너 화물 예약 전면 중단
- Gemini, 걸프 공백 대비 아시아-지중해 신규 서비스 발표
- Hapag-Lloyd, ZIM 상당 부분 Gemini에 통합될 예정
- 컨테이너 운임 30% 급등, 호르무즈 봉쇄로 200만TEU 발 묶여
- 인도, 외국 컨테이너선 연안운송 허가 완화 검토

[기타]

- HMM 육상노조, 본사 부산 이전 반대 총파업 예고
-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물류 긴급지원